

「太平天下」의 作品構造와 作家精神

閔 玕 基*

I. 序 言

蔡萬植(1902~1950)은 日帝治下와 解放直後의 훼손된 사회 환경 및 그것과 충돌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각도로 관찰·비판함으로써 당대 현실의 恥部를 照明해 낸 作家이다.

그는 「文學이 男兒 一代의 快事」¹⁾가 아니며, 文學人이 겨우 「二百字一枚에 二十五錢의 품삯을 받는」²⁾ 존재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文學의 社會的 效用性을 중시하여, 文學이 「閑人의 소일거리나 兒女子의 玩弄物에 그칠 수」³⁾가 없다는 견해를 확고하게 표명하였다.

특히 <醜>와 <美>를 辨證法的으로 파악한⁴⁾ 그의 認識方法은, 否定되어야 할 현상과 渴望해야 할 理想을 逆으로 드러내 諷刺精神과 接脈되어 독특한 作中狀況을 창조했다.

「太平天下」⁵⁾는 蔡萬植의 이러한 作家的인 面貌가 잘 반영된 諷刺小說이다. 여기에서 특히 諷刺小說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 作品이 蔡萬植 자신도 직접 설명한 바와 같이 「否定面을 통하여 肯定面을 주장」⁶⁾한 일

* 國文學科 同門, 啓明大 專講(國文學 專攻)

1) 蔡萬植, 「自作案內」(青色紙, 1935.5) p.75.

2) 上掲文

3) 上掲文

4) 上掲文

蔡萬植은 「文學的으로 表現된 현실의 <醜>를 文學的 <美>로 보지 못할 못하고서 <文學的 醜>로 여기는 <聖者>들이」있음을 괴로와 한다고 말했다.

5) 1938年 「朝光」에 연재될 때는 「天下太平春」이었는데 후에 「太平天下」로 改題했다.

6) 「自作案內」

종의 知的 策略의 반영체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諷刺小說의 構造가 諷刺小說이 아닌 作品의 그것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현저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諷刺小說은 대상에 대한 主體의 觀點이 <諷刺的>으로 구현된 小說인데, 이것은 물론 作家의 世界觀과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諷刺가 단순히 對象을 처리하는 技法의 하나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主體와 對象 사이의 存在論的인 관계로부터 선택되는 觀點의 문제, 즉 對象이 지닌 속성을 批判的인 웃음의 放射物로 파악·제시하는 <諷刺的> 觀點의 反映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太平天下」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⁷⁾ 그 평가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체로 전체 질서로서의 作品構造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러한 접근과 함께 해명되어야 하는 作家精神의 문제라든가 하는 측면이 다소 도외시되어 온 듯한 느낌이 있다.

本稿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II. 行爲의 反復

「太平天下」에 등장하는 人物들은 대부분 道德的 公理와 行動規範을 瓦解시키는 否定的 群像이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狀況內에서의 일체의 반응이 극도로 自己偏向的인 本能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에게 事理를 판단하는 정상적인 기능이 退化된 대신 고정관념만을 주장하는 우스꽝스런 고

7)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金炳翼·金柱演·金治洙·김현, 現代韓國文學의 理論(서울, 민음社 1972) pp. 331~338.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서울, 민음社, 1974) pp. 185~189.

鄭漢淑, 現代韓國作家論(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pp. 115~151.

李在統, 韓國現代小說史(서울, 弘盛社, 1979) pp. 382~386.

李注衡, 蔡萬植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집이 硬化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人物의 硬直性은 필연적으로 行爲의 反復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作品의 스토리 자체에도 악순환의 되풀이라는 內的 要因이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이 作品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의 plot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plot의 有機的 完結性」⁸⁾과는 거리가 먼, 戲畫的 에피소드의 나열, 무질서한 場面の 확대·강조만으로 일관된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소설의 사건과 인물의 행위, 성격, 사상의 점진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중간—마지막〉의 완결된 구조를 통해 독자의 독서체험도 하나의 완전하고 질서있는 것으로 충족되기 마련인데, 「太平天下」는 이러한 요소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점은 「太平天下」가 어떤 劇的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未知의 사건을 충격적으로 밝힘으로써 독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데 목적을 둔 小說이 아니라, 반성적 기능이 마비된 다양각색의 俗惡한 人物들의 타락한 행위를 조종·비판하려는 作家精神의 토양에서 이루어진 小說임을 이해할 경우엔 하등의 결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부각될 것이다.

사실 이 作品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된 有機的 구성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벌이는 온갖 행위를 人間侮蔑의 風俗으로 格下시키기 위한 戲畫的 에피소드의 나열, 무질서한 場面の 확대·강조, 시작도 중간도 끝도 분명하지 않는 狀況의 제시 등이며, 이들 통해 作家는 자신의 諷刺的 意圖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있어야 할〉 존재로서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로서 애초부터 규정되어 버린다.

8) Aristotle과 R.S. Crane의 plot이론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Aristotle, 「詩學」 孫明鉉 譯(博英社, 1960) 참조.

Crane R.S.,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 Jones, Criticism and Criticism(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참조.

尹直員은 가혹한 日帝治下의 현실을 太平天下로 예찬하는 倒錯된 社會觀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닦아 놓은 富의 기반이 外部의 변화로 인해 무너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더욱 재산을 늘이기애 여념이 없는 철저한 배금주의자이다. 그는 자신의 安樂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머느리한테는 「작 짓을 년」⁹⁾ 아들한테는 「잡어 뽑을 늬」¹⁰⁾이라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해대며, 기회만 있으면 나이 어린 기생을 유혹하는 「홍안백발의 좋은 풍신」¹¹⁾을 자랑하는 일흔 두 살의 노인이다.

그의 아버지 윤용규는 作品에서는 이미 죽은 과거의 人物이다. 말대 가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윤용규는 「삼십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샷갓 하나를 의관삼아, 촌 노름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꾼이나 뜯으면 그걸로 되돌아 앉아 투전장이나 뽑기, 방통이질이나 하기, 또 그도 저도 못하면 가난한 아내가 주린배를 틀켜 쥐고서 바느질 품을 팔아」¹²⁾ 겨우 생활하는 집에서 「밤이나 낮이나 질펀히 드러누워 소대성이 여대치게 낮잠이나」¹³⁾ 자면서 반평생을 산 「판두식꾼」¹⁴⁾이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는데(작품에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로부터 그의 경제적인 지위는 中産階層으로 급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韓末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그의 재산은 지방 수령과 화적들의 수탈 목표가 되고, 그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

윤직원의 장남인 창식은 「밤이고 낮이고 하는 일이라고는 상스럽지 않는 친구 사귀어 두고 술 먹으러 다니기, 활쏘기, 제철 따라 勝地로

9) 韓國文學全集 9(民衆書館, 1958) p. 406. 以下 作品 인용은 모두 여기에 의거하며 편의상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10) 作品, p. 406.

11) 作品, p. 392.

12) 作品, pp. 406~407.

13) 作品, p. 407.

14) 同上

유람다니기, 옛 漢書 모아 놓고 뒤지기, 漢詩 지어서 신문사에 투고하기, 이 첩의 집에서 술 먹다가 심심하면 저 첩의 집으로 가서 마작하기, 그래 도무지 유유자적한 게 어떻게 보면 신선인 것처럼¹⁵⁾ 보이지만 「첩 질이나 하고 마작이나 하고 요정으로 밥을 새워 드나드는 걸 보면 갈데 없는 불량자」¹⁶⁾에 불과한 인물이다.

次男인 태식은 윤직원이 「인간 생긴것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하는」¹⁷⁾ 열 다섯 살 된 庶出인데(어머니는 술집 여자이다.) 기형아이며 지능이 매우 뒤떨어진 선천적 바보이다.

윤직원의 맏손자인 종수는 고향에서 군서기 노릇을 하지만 「군에 다니는 건 명색뿐이요, 매일 술타령에 제집질, 게다가 한 달이면 사오차씩 서울로 올라와서는 뚜드려 먹고」¹⁸⁾ 지내는 방탕한 인물이다.

윤직원의 증손자인 경손은 태식이와 나이가 같은, 즉 할아버지와 동갑내기라는 기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사람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누가 무어라고 하건 조금도 무섭지가」¹⁹⁾ 없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가족에 대한 경멸부터 배워버린 아이이다.

윤직원의 딸 서울아씨와, 며느리 고씨, 손자며느리 박씨와 조씨 등 네 사람은 모두 과부라는 공통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서울아씨는 「양반 혼인을 하느라고」²⁰⁾ 매우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친정에 와서 살고 있는 「진짜 과부」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생과부」이다. 이러한 사실은 作品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과부, 통과부, 메과부로 과부 모를 부어 놓았으니 꽃모종이나 같았

15) 作品, p. 431.

16) 同上

17) 作品, p. 423.

18) 作品, p. 505.

19) 作品, p. 436.

20) 作品, p. 423.

으면 춘삼월 계절을 기다려 이웃집에 갈라 주거나 하지요. 이전 모는 부어 놓
고도 모종으로 갈라 줄 수도 없는 인간 모종이니 딱한 노릇입니다.²¹⁾

기타 小人物(minor character)인 대복이, 석서방, 춘심이, 병호, 육화
박물장수, 칠포 전주덕, 행랑아범, 행랑어멈, 뚜쟁이여인 등은 운씨 가
문에 기생하며 비속한 짓을 되풀이하거나 또는 몇 분의 돈을 바라고 술
책을 부리는 非倫理的인 者들이다.

以上の 人物들이 集合하여 노출시키는 잡다한 결점들로 인해서 作品
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무질서하게 된다. 스스로에 대
한 省察이라든가 他人에 대한 正當한 思考機能이 박탈된 상태에서 말하
고 행동하는 이들의 존재는 결국 어리석은 自己消費의 증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자가 보는 것은 人物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 아니
라 얼마나 많은 정신적 不純物이 人物들에게서 검출되느냐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作品의 人物들 중, 발전하는 人物은 하나도 없다. 外
的 환경과의 갈등을 통한 內面意識의 變化를 人物의 발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물론 小說에서 構造와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다.

「太平天下」의 人物은 變化·발전하는 인물이 아니라 靜的(static)인
인물이다. 즉, 그 人物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인물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作家의 諷刺的 意圖 때문에 그러하다. 諷刺的 人物
은 다른 架空의인 인물보다 더욱 더 작가 자신의 창조물이며, 그의 속
성이 어نگ든 간에 작가의 諷刺的 意圖의 지배를 받는다.²²⁾ 諷刺的 作品
의 시초에서 諷刺的 意圖가 規定되고, 그 人物이 그 의도를 실증하는
역할을 한다.²³⁾

「太平天下」의 운직원을 비롯한 기타 否定的 人物들의 일거일동은 作
家의 신랄한 풍자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 人物들이 되풀

21) 同上

22) Pollard, Authur, Satire(London: Methuen & Co. Ltd., 1970) p. 54.

23) 同上

이하는 愚行은 진실을 모르는 자들의 人間侮蔑의 風俗에 지나지 않는다.

이 作品이 독자에게 주는 흥미는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온갖 人物이 벌이는 醜態에서 온다. 諷刺의 사건이나 인물은 정해진 結末을 향해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事態의 惡化를 촉진하는 動機가 되고 있다. 조롱과 공격과 비판이 作家의 主된 意圖이기 때문에 事態의 好轉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III. 惡化되는 事態

이 作品에서 윤지원은 秦始皇과 알레고리적으로 同等視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줌도 먹고 보전체조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고 해서 어떻게든지 몸을 충실히 하여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윤지원 영감의 크고 큰 소원입니다. 만석의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아니, 자꾸자꾸 더 늘어가면서) 오래오래 백살 이백살, 백살 이백살이라니, 천살 만살(아니, 천지가 무궁할테니 그 천지로 더불어 무궁토록),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가산을 남겨두고 이 좋은 세상을 백살을 못살고서 죽어버리다니 그건 도저히 원통하고 섭섭해 못살 노릇입니다. 옛날의 秦始皇은 영생불사를 하고 싶어 동남동녀 오천명을 동해의 선경으로 보내어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우리 윤지원 영감도 진실로 그만 못지 않게 영생의 수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허기야 걸핏하면 머, 내가 앞으로 오십년을 더 살겠느냐 백년을 더 살겠느냐, 다만 한 십년 살다가 죽을 걸…… 어찌구 육장 이런 소릴 하곤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천지의 公道요 하니까, 사실도 사실이겠지만, 윤지원 영감은 비록 말은 그렇게 할값에 마음은 결단코 앞으로 한 십년 고거나 더 살고서 죽고 싶은 않습니다. 결대로 영생불사…… 진시황과 같이 간절하게 영생불사를 하고 싶습니다. 윤지원 영감이 재산을 고이고이 지키면서 더욱더욱 늘이고 일변 양반을 만들어 내고자 군수와 경찰서장을 양성하고 하는 것은 진시황으로 치면 오랑캐를 막아 진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萬里長城을 쌓던 역사적이요 세계적인 그 토목사업과 다름없는 역사적인 정신적 토목사업입니다. 만리의 장성을 높이 쌓아, 나라를 천지로 더불어 길이길이 지키고, 나는 불사약을 먹어 이 나라의 주재자로 이 영광을 무궁토록 누리고…… 하자던 진시황과, 만석꾼의 가산을 더욱 늘어가면서 천지로 더불어 길이 길이 지키고 양

반을 만들어 가문을 빛내되, 나는 오줌을 먹고 보진체조를 하고 보약을 먹고 하여, 이 집안에 가장으로 이 영광을 무궁토록 누리고 하자는 윤직원 영광과, 그 둘은 조금도 서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²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윤직원이 秦始皇과 알레고리적으로 동등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영생불사하고 싶은 욕망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본능으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많은 家産을 남겨 놓은 채 죽는 게 원통하다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秦始皇이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윤직원도 「역사적인 정신적 토목사업」을 벌였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家産을 늘이는 일과, 가문을 양반으로 만드는 일, 자손 중에서 군수와 경찰서장을 배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째는 그렇게 쌓은 城 안의 주재자로서 영광을 누리려는 생각이다.

그런데 秦始皇의 경우와 윤직원의 경우가 이처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 서술자의 의도는 보다 깊은 내용을 암시하려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세 가지의 일치점에서 다른 중요한 일치점 하나를 더 유추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미 秦始皇의 욕망이나 계획이 결국은 자기파멸의 원인이었음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윤직원의 미래를 예시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말해 파멸이라는 측면에서 진시황의 과거형과 윤직원의 미래형은 일치된다는 사실이다. 진나라의 망함과 윤직원家の 미래의 파멸을 알레고리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作家는 윤직원家の 타락한 모습에 대한 독자의 불쾌한 감정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作品은 이처럼 파멸을 향해 접근하는 윤직원家の 현재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점차로 惡化되는 事態로 인한 혼란을 二重으로 밝혀주고 있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²⁵⁾는 「선언」과 함께 시작된 윤직원의 필생의 목표인 「네 가지 事業」²⁶⁾은 富의 축적과, 族譜에 도금하는

24) 作品, pp. 525~526.

25) 作品, p. 406.

26) 作品, p. 422.

것과, 가문의 양반 결혼과 자손 중에서 군수와 경찰서장을 배출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목표로 말미암아 事態의 惡化만 야기된다.

富의 축적은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과 손자의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는 물질의 파괴적 의미와, 윤직원이 죽으면 모두 탕진 되고 말, 일시적인 재산의 무가치성만 두드러지게 드러낼 뿐이다.

族譜의 도금도 돈에 의해 실현되긴 하나 별다른 의미가 없고, 특히 양반과의 결혼은 가정의 불화만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군수와 경찰서장의 배출 문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作品의 결말 부분에서, 경찰서장이 되라고 일본에 유학까지 보낸 손자 중학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윤직원의 음성은 그가 쌓아놓은 城이 무참하게 붕괴되는 소리 그 自體이다.

윤직원의 모든 목표는 무지와 盲人的인 사회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事態의 惡化만을 가져오고 만다. 惡인이 남의 무지를 惡用하는 者라면 바보는 스스로의 무지를 惡用하는 者이다. 그리고 윤직원은 대표적인 바보이다.

바보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인물이다. 그의 모든 행위는 무가치한 것인데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고집스럽게 반복한다. 따라서 바보는 그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바보가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자는 바보의 영역 밖에 있다.

諷刺小說에는 바보들만이 등장하는 경우와, 惡人만이 등장하는 경우와, 바보와 惡인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독자는 바보들이 나오는 諷刺小說에서는 웃음을, 惡인이 나오는 作品에서는 혐오감을 정서반응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諷刺作家편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구분된다. 바보를 취급하는 作家는 <실득>에 목적을 두고 惡

人을 취급하는 作家는 〈懲罰〉에 목적을 둔다.²⁷⁾

윤직원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他人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이다. 事態가 악화되어 그의 가문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역시 그에게 책임이 있다.

바보의 어리석은 自己消費인 행위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조롱당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作家는 이 作品에서 바보인 윤직원의 무지와 정신적 타락을 혐오감으로써가 아니라 조롱으로, 분노로써가 아니라 야유로써 풍자한다. 바보는 혐오와 분노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가르치고 설득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 人物이다.

IV. 敘述方式

보편적으로 諷刺小說의 敘述方式은 다른 小說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相異하다. 그 이유는 作家가 主體者로서 대상을 선택·과약 제시할 때나, 어떤 敘述者를 내세워 作中現實을 처리하도록 특정한 관점 및 태도를 부여해줄 때나, 항상 諷刺라는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의 諷刺란 小說의 전체 구조를 이루고 作家의 세계관을 표명하는 거점이 되어야 하며, 단지 소재로서의 諷刺, 단절적이거나 종속적인 의미의 諷刺는 아니다.

諷刺의 특이한 局面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상을 다루는 方法이다. 그런데 그 대상은 늘 공격당하고 비판되고 힐책되는 현실세계의 惡이나 非理와 同一線上에 있는 〈어떤 것〉이므로, 作家가 실제 주장하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간접적이거나 陷默의으로밖에는 제시되지 못한다.

27) Rosenheim, J.R. Edward. W., Swift and the Satirist's Art(Chicago, 1963) p. 15.

「太平天下」의 叙述者는 대상의 비정상적인 속성을 확대하면서, 그것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망신당하고 格下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일에 특히 注力한다. 독자의 感情移入을 차단하고, 독자를 狀況 밖으로 끌어내어 비판적인 거리에 서서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 作品에서 叙述者의 기본적인 태도는 탁월한 흥내쟁이와 여러모로 일치된다. 흥내쟁이의 탁월성은 대상의 모든 非自覺의인 행위를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歪曲하여 육되게 하는 능력에서 온다.

흥내란 프라이버시(privacy)의 침입이며 자기가 독특하여 결코 모방될 수 없다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 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²⁸⁾ 戲畫(caricature)란 이러한 흥내의 視覺的 等價物이다.²⁹⁾

「太平天下」에서 윤직원을 비롯한 기타 人物들의 일거일동이 흥내내어 집으로써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叙述者의 다양한 語調 속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남머리 전집스런 소리를 잘 하는 것도 아마 윤직원 영감의 대부터 내림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종수는 갈매없는 후배자식입니다. 한 것이, 병호와는 같은 고향인데, 나이 심오년이나 총이 집니다. 심오년이면 부질(父執)이 아 닌니까. 종수 제 부친 창식이 윤주사가 마흔 여섯이요 해서, 사실로 병호와는 네랑네랑하는 사이니까요. 그런것을 글씨, 절하고 보입던 못할망정 버일떡 자 빠져서는 한단 소리가, 무얼 할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느냐는 게 첫인 사니, 늬이 후배자식이 아니라구요.³⁰⁾

이것은 육설이다. 叙述者가 나쁜 것을 솔직히 나쁘다고 밝히면서 대상의 결함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육설은 위에서 보듯 대체로 과장된 표현의 일종이다. 자기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의 어른을

28) Hodgart, Matthew, Satire(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p. 121.

29) 上揭書 p. 122.

30) 作品, pp. 506~507.

보고 「무얼 할어 먹느라고 주둥이를 끌고 다녔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정을 한 이유는 대상의 결함을 확대시켜 뚜렷이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춘심이는 대그르르 웃고, 윤직원 영감은, 꿈! 저 잠껏 좀 부아! 하면서 혀를 참니다. 연애를 하면 밤이 쉬 삭는다구요. 윤직원 영감은 그런데, 저녁밥을 선치기까지 한 판이라 속이 다뽁 허술해서 우동 한 그릇을 탕수육으로 반찬 삼아 길게 먹었습니다.³¹⁾

연애는 환장이니라(Love is blind)란다더니, 옛말이 미상불 옳아, 이다지도 야속스리 윤직원 영감 같은 노인에게까지 들어맞기를 하는군요.³²⁾

이것은 야유이다. 72살의 윤직원이 15살의 춘심이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叙述者는 대상의 정신적 타락과 육체적 奇行을 야유로써 강조한다.

독자는 이미 윤직원이 好色漢임을 알고 있으므로 「연애를 하면 밤이 쉬 삭는다」든가 「연애는 환장이니라」라는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불결하고 俗惡한 상황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二重으로 깨닫게 된다.

아무리나 이래서 조손(祖孫)간에 계집애 하나를 가지고 동락을 하니 노소동락(老少同樂)일시 분명하고, 곁하여 규모 집안다운 계집*소비절약이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절약은 좋을지 어떨지 몰라도 안에서는 여자의 인구가 남아 돌아가고(그래 한숨과 불평인데) 밖에서는 계집이 모자라서 소비절약을 하고(그래 칠십 노옹이 예순 다섯 살로 나이를 야바우치고 열 다섯 살 먹은애가 강짜도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전시(戰時) 체계하의 용어를 빌어오면 통제가 서지를 않아 물자배급(物資配給)에 체화(滯貨)와 품부족(品不足)이라는 슬픈 정상을 나타낼 게 아닐 수 없겠습니다.³³⁾

이것은 아마도 「太平天下」의 叙述的 특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例文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트와 조롱, 아이로니, 逆說이 혼합되어 윤직원家の 추천 모습을 신랄하게 諷刺하고 있다.

31) 作品, pp. 483~484.

32) 作品, p. 480.

33) 作品, p. 502.

집 안에는 과부가 많고 집 밖에는 여자가 모자라, 증조할아버지와 증손자가 기생 하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기괴한 현상을 「物資配給에 滯貨와 品不足」이라는 경제혼란의 문제로 우스꽝스럽게 비약시킨 것은 특히 대상을 향한 공격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以上の 몇 가지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作品은 대상의 偏執狂인 탐욕과 망상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叙述方式을 고루고루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方法이 장면마다 또는 문맥마다 달라지며 叙述되는 내용과 실제 의미된 것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서, 作家의 諷刺의 意圖가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蔡萬植은 「太平天下」의 再版 序文에서, 윤석원의 言行 自體를 이 作品의 <중심 테마>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대해 不滿을 吐露하고 있다.³⁴⁾

이러한 不滿의 裏面엔 아마도 자신의 作家精神의 핵심을 모른 채 단지 표면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諷刺作家는 그가 제시하려는 道德的 命題를 作品 前面에 직접 내세워 주장하지 않고 대부분 假托物(victim)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독자는 간혹 作家의 意圖를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표현된 言語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단순한 독자는 作家에 대해 심한

34) 韓國文學全集 9(民衆書館, 1958)에 蔡萬植의 「再版을 내면서」라는 글이 수록 되어 있다.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보는 초점이 다른 것이어서, 이 작품에 대하여서도, 가령 윤석원 영감의 그런 점잖지 못한 행사만을 가지고 그것이 작품의 중심 테마인 것처럼 말을 하는 편이 없지가 아닌 한 모양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자로 앉아서 독자에게 작품을 강화한다는 것도 허락지 않는 노릇, 차라리 재주가 미급(未及)하여 만 독자에 고루 작자의 옳은 뜻을 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부끄러히 여기거나 할 따름이다.」

반발감을 갖기도 한다. 왜 이 作家는 항상 否定的으로만 대상을 보는가? 왜 모든 현상을 格下시켜 우스꽝스럽고 괴상하고 불쾌한 요소만을 고의적으로 확대 강조하는가?

사실, 諷刺作家는 파괴전문가이다.³⁵⁾ 그는 理想으로부터 떨어진 현상 전체가 否定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공격·조롱한다. 그가 취급하는 인물이나 묘사하는 장면은 역겹고 혐오스럽다. 그는 꽃향기보다는, 오물냄새에, 正義보다는 사기와 협잡에, 박애주의자보다는 패덕자에 더욱 흥미를 느낀다.

그는 他人의 우둔과 결함에 민감하게³⁶⁾ 반응하고 그것을 폭로 파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그는 응시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서서, 비판적이고 적의를 품고, 경멸적인 방향에서 세계를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총체적 비전(wholness of vision)을 얻을 수가 없다.³⁷⁾

그러나 이처럼 대상을 否定的으로 제시하는 諷刺作家의 주된 의도는 독자에게 心理的 反動을 유발시켜 나쁜 상황의 改善을 촉구하고, 진실을 열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진실이 없는 세계[作中現實]에 대한 독자의 不一致感을 極大化시킴으로써, 諷刺作家는 독자로 하여금 응호되어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왜 진실이 필요한지를 천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V. 結 語

「太平天下」는 조화있고 균형잡힌 理想的인 삶의 典型을 보여주는 데

35) Sutherland, James, English Sat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 1.

「풍자작가는 빈민굴을 철거하는 자이지, 도시계획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한다.

36) Pollard, Arthur, 前掲書 p. 1.

37) Sutherland, James, 前掲書 p. 15.

신, 비속하고 타락한 삶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人物들은 대부분 道德的 公理와 行動規範을 瓦解시키는 否定的 群像들로서, 이들의 모든 행위는 단지 人間侮蔑의 風俗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에겐 事理를 판단하는 정상적인 기능이 退化되어 있으며, 건전한 對他關係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自己省察의 노력이 全無하다.

그러므로 독자가 보는 것은 人物이 변화·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잡다한 不純物만 누적시키며 되풀이하는 人物의 惡行 그 自體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行爲의 反復으로 말미암아 事態의 惡化가 야기된다. 이처럼 대상과 狀況을 否定的으로 제시하는 作家의 意圖는 독자에게 心理的 反動을 주어 나쁜 현상의 改善 촉구하고 진실을 열망하도록 하는 데 있다.

否定的 현상의 否定을 강조하는 이 作品은, 독자의 극적환상(dramatic illusion)과 감정이입(empathy)를 제거하고 作中現實에 대한 不一致感을 조장하여, 비판받아야 할 것과 옹호되어야 할 것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하게 해준다.

構造上으로 이 作品은 完成의 만족을 주지 않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有機的으로 연결되는 完結構造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계속, 그리고 그것의 惡化를 향해 끝없이 <열려 있는> 構造이다.

결국 독자는 어떤 것에도 安住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이것은 作品 안에서 희망을 걸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理想과 現實을 배반되어진 상태로 제시하는 諷刺小說은,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의 惡德이나 反價値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주면서도 진정한 결말은 未決, 즉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 놓는다. 이것은 독자의 참여를 바라는 諷刺作家의 逆說의 희망이기도 하다.